



김은선

“우리끼리 야구할 땐 내가 투수
커브도 던질 수 있어요”



윤석민

“비시즌 학교에서 축구 자주해
공격수인데 잘 안 뛰어”

광주 FC 주장 김은선·KIA 타이거즈 윤석민 유쾌한 만남

용의 군단 용띠 주장 김은선과 호랑이 군단의 대표 호랑이 윤석민이 만났다. 두 번째 시즌을 앞둔 K리그 막내, 광주FC의 주장 김은선과 2011년 최고의 한해를 보낸 투수 4관왕 윤석민. 광주에는 박호진·이승기·박기동 등 13명의 용띠 선수가 포진했다. 1988년 용띠 미드필더 김은선(24)은 신임 주장으로 용의 선수들을 이끌고 광주의



2012년의 비상을 꿈꾸는 광주 FC 주장 김은선(왼쪽)과 KIA 에이스 윤석민이 광주 동구 광산동 한 음식점에서 만나 사인볼을 교환하고 있다. /김진수기자 jeans@kwangju.co.kr

◇야구는 쉬운 운동이다?
건강한 두 청년의 첫 만남. 어색하다. 자기 소개를 하고 사인볼을 주고 받은 두 사람, 그동안 궁급했던 축구와 야구 이야기를 풀어내며 대화를 시작한다. MVP 축하 인사를 받은 윤석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.

윤석민(이하 윤) : 축구 시즌은 언제 시작해요?
김은선(이하 김) : 3월에 시즌이 시작됩니다. 30경기 했는데 올해는 40경기로 늘어났어.
윤 : 우리는 133경기 뛰어요. 지난해 (나)지완이 형이 개막전 보러 가자고 했는데 못 갔어요. 광주는 나 이들이 어떻게 되요?
김 : 거의 제 포레요. 위에 36살 형이 있기는 한데 바로 다음이 29살이예요.
윤 : 선배가 없으면 눈치 안보고 좋지 않아요? (웃음) 주장이면 어려움도 있겠네요.
김 : 부담감이 엄청 크죠. 승강제도 생기고.

이때 두 선수 사이의 어색함이 풀리는 김은선의 고백이 나온다.

김 : 솔직히 야구 선수는 운동선수도 안 봤어요. 쉬어가면서 하는 게 많으니까. 투수, 포수들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번 치고 쉬는 시간 많고, 투수가 잘 던지면 외야수들도 많이 쉬잖아요.

한참을 웃던 윤석민의 답변과 공격이 이어진다.

윤 : 타자도 힘들어요~. 야구는 준비하는 게 힘들죠. 수비 훈련하고 배팅 훈련하고. 또 경기 끝나고 이동하다 보면 새벽 3시가 되기도 해요. 일어나서 다시 운동하고 시합하고, 축구는 90분 뛰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것 같지만 한번 뛰고 며칠 쉬잖아요!
김 : (웃음) 우리도 보강 운동 하고 계속해서 훈련은 해요!

◇집이 어색한, 평범한 20대 청년들
인천이 고향인 김은선은 대구대를 졸업하고 2011년 광주의 유니폼을 입었다. 구리 출신인 윤석민은 인천 중·야탑고를 거쳐 2005년 타이거즈 일원이 됐다.

김 : 어렸을때부터 타자 생활을 해서 광주에서 생활이 어렵지 않아요. 집이 오히려 적응이 안돼요.
윤 : 그렇게. 집에 가면 엄마랑 아빠가 어색하니까요. 취미는 있어요?
김 : 낚시가 취미예요. 대학교에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낚시도 하고 그랬어요.
윤 : 소가리 잡아봤어요? 소가리 잡으러 곡성까지 가는데.

역시 낚시가 취미인 윤석민. 두 선수 한동안 낚시 얘기를 하느라 분주하다. 여자친구 얘기가 나오자 두 사람의 표정이 바뀐다.

김 : 대구에 여자친구가 있어요.
윤 : 난 없는데. (부러운 표정으로) 대구로 만나러 가기도 해요?
전지훈런 얘기가 나오자 이번에는 김은선이 부러운 표정이 된다.

윤 : 우리는 애리조나에서 훈련을 해요.
김 : 중국으로 가는데 야구단 휴양지 같은데로 전지훈런 가는 게 부러워요.
윤 : 야구장 있는 나라가 적어서 시설 좋은 데를 가다보니까. 축구는 전세계에서 하는 거라서 경기장이 많잖아요. 축구는 외도에 별로 터치 안 하죠?
김 : 감독님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 머리 한번 하고 사진 잘못 찍어서 골목 사진도 있어요. 지인이 소개팅을 해준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인터넷에서 내 이름을 검색했나봐요. 사진 보고 주선자에게 “이건 아니잖아”라고 항의를 했대요.
윤 : 에이 ‘골목’은 내 앞에서 얘기 하지 말아요. 난 수도 없이 많은데. 그런 것 신경 쓰지 말아요.

◇축구는 윤석민, 야구하는 김은선
김은선은 현재 축구인이다. 대구대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동생과 김은선은 야구를 즐겨보는 야구 팬이기도 하다. 최전방 공격수라고 큰 소리 치는 윤석민은 올림픽축구대표팀 윤석영(전남 드래곤즈)과 친척이다. 야구와 축구를 넘나드는 스포츠인들이다.

윤 : 아시안게임 끝나고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석영이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내가 석자 돌림인데 어렸을 때 같이 숭바꼭질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랬다고.
김 : 저는 축구 선수보다 야구 선수들을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. 형 등판도 많이 봤어요. 작년도 잘하셨

잖아요. 야구장 가고 싶었는데.
윤 : 나도 축구장은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. (시속 얘기를 듣고) 시속도 있었어요? 나 공 잘차요!
김 : 나도 야구장에서 공 던져보고 싶어요!
윤 : 12월에 쉬잖아요. 쉬는 기간 모교를 가면 축구 같은 걸 자주 한단말이에요. 우리는 그러면 축구를 한 120분씩 해요. 매일 하는 야구 재미없잖아요. 축구공 하나만 던져놓으면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요.
김 : 제 차에도 배트랑 야구 용품있어요. 우리도 대학교에서 야구 하거든요. 야구장이 없으니까 축구장 가서 해요. 우리끼리 스트라이크라고 웃고.
윤 : 포지션이 뭐예요?
김 : 저는 투수예요. (윤석민이 크게 웃는다) 직구만 던져요. 박찬호 선수가 던지는 방법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따라 던졌는데 공이 이상하게 가요.
윤 : 라이징 패스트볼! 그 공은 내가 던져야 하는데.
김 : 직구가 힘이 없으니까 공이 가다가 떨어져요. 그러면 그걸 커브라고 우겨요. 우리끼리 서로 ‘왓지왓지’ 하면서 놀아요.
윤 : 나는 최전방인데. 잘 안 뛰어 다녀서. (웃음) 그래도 프리킥 같은 것 내가 다 차요. 야구도 조금만 하면 쉬어요. 회전, 회전만 잘 주면되요.
윤석민이 그림을 잡아보이며 야구강의에 나선다. 두 선수 손을 맞대보는데 김은선 손이 더 크다.
윤 : 야구를 했어야 했는데. 손이 나보다 더 커. 손가

락이 기니까 포크볼 던져봐요. 직구 잡는 것 알죠? 직구는 실밥 4개가 일정하게 가서 변화가 없거든요.
김 : 실밥 차이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되요?
윤 : 우리도 신기한데 정말 그래요. (그림을 쥐어 보이며) 이렇게 던지면 회전이 얼마 없어서 쉽게 떨어지겠죠. 공기 저항때문에 흔들리면서 떨어져요.
◇야구선수 윤석민, 축구선수 김은선
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던 스포츠맨들. 결국은 가장 좋아하는 야구와 축구를 선택했다.
김 : 학교에 축구 팀이 있었어요. 축구 하는 걸 보고 뛰고 싶었어요. 축구가 제일 좋았죠.
윤 : 초등학교때 축구를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축구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. 테스트해서 뽑았어요. 그런데 1주일 뒤에 야구부가 창단된다고 해서 갔다가 선발됐어요. 바로 야구를 한다고 했죠.
김 : 포지션은 뭐였어요?
윤 : 포수도 하고 3루수도 하고. 진짜 야구 잘했어요. 팀이 8개 전국대회에서 모두 우승했는데 3번 타자 겸 에이스로 홈런도 27개를 쳤죠. 신적인 존재였는데 중·등학교 가니까 못해지더라고요. (웃음) 다른 애들은 쪽쪽 쫓았는데 나는 고 2때 10cm가 컸어요.
김 : 나도 고등학교때 갑자기 컸는데 광주엔 큰 애들이 많아서 작은편(181cm)이에요. 팀 평균키가 185cm가 넘어요.
윤 : 매일 뛰니까 몸무게는 많이 안 나갈 것 같아요.

김 : 우리는 체지방이 15%가 기준인데. 내가 12%고 안 나가는 선수가 7~9%정도. 23%도 있죠.
윤 : (웃으면서) 축구에도 23%가 있구나.
김 : 찌는 애들은 적어요.
윤 : 한번 경기하면 피로 풀리는데 얼마나 걸려요?
김 : 경기는 적는데 5일에도 회복이 안될 때도 있고. 야구 선수들은 3경기씩 하고 그러잖아요.
윤 : 시즌 끝날 때까지 회복이 안 되요. 한번 던지고 나면 상체를 반으로 나눠서 목까지 오른쪽 근육이 다 올라와요. 풀릴 때쯤 다시 던지고, 시합할 때 한 명만 마르잖아요?
김 : 꼭 그러지만은 않아요.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만 뛰는 것도 아니니까요.
윤 : 개인마크 하면서 얘기들도 해요?
김 : 코너리 상황에서는 상대와 얘기도 하죠.
윤 : 우리는 포수들이 많이 해요. 직구 드릴까요. 커브 드릴까요 장난도 치고. 몸쪽 갑니다하고 바깥쪽으로 던지게 하고. 축구 선수들은 100m 몇 초에 뛰어요?
김 : 빠른 선수는 10초 대에 뛰기도 하고, 11초 중후반 정도에 뛰죠.
윤 : 축구 안 하길 잘했어. 나는 13초5 이리는데.

◇그라운드 위 승부사
외유내강 윤석민, 그라운드의 야수 김은선. 수줍게 대화를 나누는 두 선수지만 그라운드에서 만큼은 자기 싫어하는 승부사들이다.

윤 : 야구는 매일하니까 정신없이 흘러 갈 때가 많은데 점수가 나다 보면 집중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집중력이 진짜 중요하죠.
김 : 점수차가 많이 날 때 특히 전반에 승부가 기울면 그날 경기 참 힘들어요. 우리가 걸어내면 무조건 상대편에게 가는 그런 날도 있고. 그래도 90분 동안 정말 열심히 뛰어요.
윤 : 야구도 그래요. 잘 던져도 맞고, 빗맞아서 안타가 되고, 잘되는 날은 막 던져도 스트라이크가 되고, 잘못 던졌는데 반대로 가서 스트라이크가 되기도 하고.
김 : 승리를 놓칠 때 기분이 어때요?
윤 : 승 날아가기 전까지는 괜찮죠. 좋게 생각하려고 해요. 또 카메라가 비추니까 표정관리도 하죠. (웃음) 화도 나는데 던지는 선수에게 화가 나게 아니라 상황에 화가 나요. 그래도 끝나고 전화해서 어디냐고 괜찮다고 하고.
김 : 우리는 정신없이 뛰는데 많이 부딪히니까 경기 끝나면 여기저기 아파요.

처음의 어색했던 분위기와 달리 자리가 끝날 무렵 형·동생이 된 두 선수. 새해 덕담을 주고 받으며 2012년의 활약을 결의했다.
윤 : 얼굴 봤으니까 꼬박꼬박 챙겨보면서 응원 많이 할게요. 또 각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마주쳤으면 좋겠어요.
김 : 지난해 워낙 잘했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으시겠지만 준비 잘해서 올해도 꼭 좋은 성적 내세요. 저도 주장으로서 역할잘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
/김여울기자 wool@kwangju.co.kr

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
http://www.hkcarland.com (일일신협 조합원의 집)
TEL. 062-521-2258 H.P. 010-9633-3535
아이나비 | 만도네비 | 모비스네비 | 블랙박스 | 후방카메라 | 샤크안테나 | 도난경보기 | 이자카 | 스타트버튼
▶거치형 본인 네비 매립 전자종 17만원 ⇒ 12만원
▶아이나비K100, 3D(8G)+마감제+샤크안테나+후방카메라 58만원 ⇒ 50만원
▶아이나비ES500, 2D(4G)+마감제+샤크안테나+후방카메라 58만원 ⇒ 47만원
▶만도정품MD300, 2D(4G)+마감제+샤크안테나+후방카메라 58만원 ⇒ 45만원
▶만도지니 J7, 2D(4G)+마감제+샤크안테나+후방카메라 48만원 ⇒ 40만원
▶모비스폰토스 PU-7, 3D+마감제+샤크안테나+후방카메라 60만원 ⇒ 52만원
▶모비스폰토스 K-7, 2D+마감제+샤크안테나+후방카메라 58만원 ⇒ 45만원
▶트립형 매립차량은 상담후결정
▶카오디오, 블랙박스, 후방카메라, DMB샤크안테나
▶자동차경비일체, 빗더리, 오일교환, 라이닝 기타
▶한국어, 영어, 베트남어, 태국어, 중국어, 인도네시아어, 수필타이어
▶연간가속시험, 인조가속시험, 수입차 가속시험제조
▶여름상품, 겨울상품, 체인
▶모비스순정용품, 키약세서리 일체
▶이자카 도난경보기, 후방감지센서
▶본인네비 매립 17만원 ⇒ 12만원
▶후방카메라 15만원 ⇒ 9만원
▶샤크안테나 10만원 ⇒ 6만원
▶만도블랙박스 8기가 전, 후방 35만원 ⇒ 30만원
▶모비스블랙박스 4기가 전방 22만원 ⇒ 19만원
▶모비스블랙박스 8기가 전, 후방 37만원 ⇒ 33만원
▶샤크안테나 및 통합안테나
▶E770B 40만원
▶E1 7만원
▶E2620 10~14만원
▶E7-S 43만원 / E7-B 51만원
▶E7 37만원
▶ET 17만원